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4. 3. 18.(월) 배포	사진	2	자료	0	매수	1
담당부서	용인소방서 재난예방과 (생활안전팀)	과 장	이기봉 (031-8021-0300)				
		팀 장	송해연 (031-8021-0330)				
		담당자	박주경 (031-8021-0334)				

남화영 소방청장, 용인소방서 경기도를 넘어 전국 최대 소방력으로의 도약! ‘남·다·름 소통간담회’ 개최

- 용인 세브란스병원 방문 의사 집단행동 대응 현장점검 참석
- 용인소방서 현장대원과 ‘남·다·름’ 소통간담회 실시



△ (사진 용인소방서 제공)

남화영 소방청장은 18일 용인소방서를 방문해 직원 및 현장대원을 격려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남·다·름’의 캐치프라이즈는 남화영 청장과의 다양한 이야기와 아름다운 소통의 시간을 가지자는 의미의 릴레이 소통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용인 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현장의 소리와 구급 환자 이송체계 관련 현장점검을 나섰고, 국민의 의료공백 우려를 직접 전달하여 사태의 장기화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이어서 용인소방서를 방문해 소방력 및 소방출동 건수 경기도 최대를 기록하는 관서의 구급 및 화재진압 등 현장대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고, 경기도를 넘어 전국 최대 소방력으로 도약하였다는 대원들을 향한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남화영 청장은 “비록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과 봄철 화재가 집중되는 시기에 출동력의 피로감이 크게 치닫고 있는 실정을 이해한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걸음 더 뛰어야 하는데 용인 소방은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했다.

안기승 서장은 “소방청장이 용인소방서 직원과 현장대원에게 직접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어 대원들이 더 힘을 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원동력이 될 것임을 기대하며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